

과학소설의 서사적 추진력: 『완전사회』의 대안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손나경

계명대학교 타블라 라사 칼리지 교수

Narrative Drive of Science Fiction: the Case of the Alternative Imagination of *the Perfect Society*

Na-Gyung Sohn

Professor, Tabula Rasa College, Keimyu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문윤성의 『완전사회』에서 볼 수 있는 과학소설 서사의 특성을 유토피아 문학에서 볼 수 있는 대안세계의 모습과 다르코 수빈이 정의한 과학소설의 인식적 낯센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과학소설은 미래에 대한 문학이지만 또한 현실세계를 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작가 문윤성이 『완전사회』라는 과학소설을 통해 본인의 사회적 인식과 과학적 상상력을 어떻게 융합, 구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한국 최초의 장편 과학소설로 평가되고 있는 문윤성의 『완전사회』는 20세기 후반 종말에 몰린 인류가 완전인간 우선구를 수면 장치를 통해 161년 후 여성만으로 구성된 진성사회에 깨어나게 한 것으로 시작된다. 본 소설은 여성만으로 이뤄진 대안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1960년대의 시대적 고민이라는 인식적 측면에서, 상상의 산물인 낯선 미래사회의 모습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과학소설의 인식적 낯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성으로 이뤄진 사회가 종말로 치닫게 되는 과정과 중앙 세계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통제사회인 진성사회의 모습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이 윤리적이고 인문적인 고려를 동반하지 않을 때 만들어 낼 수 있는 파국에 대해, 그리고 다름의 공존을 거부하고 일체성을 강조하는 폐쇄사회가 가질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유토피아, 과학소설, 완전사회, 인식적 낯센, 디스토피아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uture world of *The Perfect Society* (1967), science fiction written by Yunsung Moon that was a very rare science fiction publication in the 1960s. In *The Perfect society*, the main character Woo Sungoo, who was chosen to survive in a sleeping capsule as a representative of 20th-century human beings, wakes in the 22nd century where only women remain. He experiences this female utopia and finds that this world still contains as much abnormal antipathy to the others and absolute autocracy as the 20th-century world he remembers even though the future people succeed in overcoming the past problems like famine and pollution. The author warns that science alone without humanistic insight in a unity-oriented society cannot settle the human's fate; rather, it only changes the aspects of human conflict.

Key Words : Utopia, Science fiction, The Perfect Society, Cognitive estrangement, Dystopia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8S1A5A2A01032666).

*Corresponding Author : Na-Gyung Sohn(na1007@kmu.ac.kr)

Received April 5, 2019
Accepted June 20, 2019

Revised May 28, 2019
Published June 28, 2019

1. 서론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라는 용어는 휴고 건스백(Hugo Gernsback, 1884-1967)이 『어메이징 스토리』(Amazing Stories, 1926)에서 쥘 베른, H. G. 웰즈,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등의 소설들을 정의하기 위해 쓴 용어 ‘Scientifiction’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에서 볼 수 있듯 과학소설은 ‘과학’적 소재와 소설문학의 ‘허구성’이 융합된 양식이다. 또한 20세기 영화산업의 등장, 영화 특수효과와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문학 뿐 아니라 영화예술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시대적 특성이 집약되고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대중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어스타운딩 사이언스 픽션』(Astounding Science Fiction) 등의 잡지를 필두로 하여 과학소설은 일찍이 대중소설로 자리매김을 했다. 반면 한국의 과학소설은 1987년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¹⁾가 간행되기 이전에는 청소년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일종의 아동문학이라 간주되었다. 그래서 일본, 미국 SF의 번역본과 1960-70년대 『학원』, 『학생과학』, 『새벗』과 같은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잡지에 연재된 “공상과학소설”로 채워졌다[1]. 하와이의 우주항공학교에 다니는 한국계 청년(『잃어버린 소년』), 우주 파일럿 고진 학생(『뎀성탐험대』)처럼 청소년이 쉽게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한나원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 20세기 중후반의 한국의 과학소설은 미래에 부국강병을 이룰 과학자 집단을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과학자 의식을 고취해야 할 도구로 간주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본격 창작과학소설로 평가받고 있는[2] 문윤성의 『완전사회』(1967)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서 돌출되는 한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가 12개의 과학 작품을 남겼던 한나원처럼 과학소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광운, 이동성, 강성철 등과 함께 국내 창작 과학소설의 주요 필자들로 구성된 SF 작가 클럽의 회원이었으며, 과학소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작가적 인식이 있었음은 <SF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3]. 그의 작품이 가진 의의는 <주간한국>의 제1회 추리소설 공모 당선작으로 이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소설 장르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적 상황 [4]에서 장르적 특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작품을 창작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완전사회』는 원고지 2천장의 분량으로 완성되어 미래 사회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낸 점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소설의 역할은 미래를 형상화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소설은 미래 뿐 아니라 과학소설이 쓰인 현시대를 비추고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을 가지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래세계를 그린 과학소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H. G. 웰즈의 『타임머신』(1895)의 경우 문명의 이기 속에서 무기력해진 엘로이족과 동물적 수성만 남은 몰록족의 묘사는 20세기를 앞둔 작가의 시점이 바라보는 유럽 문명과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사회』 역시 여성들만 남은 161년 후의 미래사회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본인이 위치한 1960년대 사회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과학소설을 현 사회와 경제 형태의 대안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정의했던 프레데릭 제임슨의 말[5]과도 통하는 것이다.

1967년에 수도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가 1985년 『여인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재간된 후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완전사회』는 최근 다시 원래의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와 함께 2010년을 전후로 본 작품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혹은 유토피아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6]. 이러한 연구 중에서 이정옥(2000)의 연구와 복도훈(2011)의 연구는 진성(여성)으로만 이뤄진 완전사회와 1960년대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페미니즘에 대한 당시 한국사회의 시대적 인식과 남성적 시각과 관련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희준(2016)의 연구는 냉전시대에 출간된 본 작품에서 나타나는 종말의식에 관한 연구이며, 이숙(2012)의 연구는 『완전사회』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반공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이다. 페미니즘과 냉전시대와 같이 1960년대에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한 연구 외에 손중엽(2014)의 『문윤성의 완전사회와 미래의 건축술』의 경우 『완전사회』의 세 가지 서사층위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바탕에서 조금 더 나아가 『완전사회』가 가진 과학소설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과학소설이 가진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르고 수빈은 과학소설의 서사적 추진력을 ‘인식’(cognition)과 ‘낯설’(estrangement)이라는 잣대에 의해 기타 로맨스와 차이점을 찾고 있으며[7], 과학소설의 원류를

1) 이 작품 역시 필립 K 딕의 『높은 성에 사는 사나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임을 작가 스스로가 밝혔다.

‘유토피아 문학’이라고 한다. 『완전사회』는 우선구라는 한국인이 타임캡슐 장치를 통해 161년이 흐른 2155년 여성들만이 사는 사회에 보내진 상황을 중심으로 하며, 이런 설정이 H. G. 웰즈의 『타임머신』의 시간여행은 물론 완전사회를 그렸던 토마스 모어의 작품 『유토피아』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학소설이며 또한 유토피아 문학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작품이 가진 인식적 낯센(cognitive estrangement)을 우선구가 수면상태에 빠지게 된 1994년의 미래에 대한 묘사와 진성사회라는 대안 세계의 모습 속에서, 또한 이런 모습이 띄고 있는 함의를 현대사회와 연관 지어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선구가 수면여행에 빠지고 난 후의 연대기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완전사회』에 대한 연구들이 이 지점에서 많은 혼선과 오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기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헤어지루의 가상의 역사는 일전 여성들만의 유토피아의 건설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이 남녀의 성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을 죄악시하고 일원화한 이념만을 강조하는 사회와 인문학적인 고려가 없는 과학이 이뤄낼 미래에 대한 우려가 들어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2. 과학소설, 유토피아 문학으로서의 『완전사회』

2.1 『완전사회』의 내용

『완전사회』는 인류종말을 가져올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1994년에 현 인류를 대표할 ‘완전인간’으로 뽑힌 27세의 한국인 우선구가 <미래로의 수면여행 계획>[8]에 의해 161년 후의 미래세상으로 보내지고, 여자들만으로 이뤄진 진성사회에서 다시 깨어나 그 사회의 사회적 문제와 직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선구가 수면 장치에 들어가는 설정과, 여성으로만 구성된 헤어지루의 정치, 사회, 생활의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소설적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평면적인 인물 처리 방식, 이데올로기적 발화의 수위 문제, 쇼비니즘적 소설 표현 등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3] 무엇보다 인류종말을 앞둔 시점에서 왜 딱 한 명의 사람을 미래 수면 여행에 참여하게 했는지에 대해 이해 가능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우선구가 미국의 디크위크 박사가 주도하는 유엔 기획에 의해 비커즈 섬에 마련된 수면 장치에서 잠에 빠진 후 161년이 지나 깨어나자, 지구는 3차에 걸친 전쟁, 그중에서도 12년 간에 걸쳐 치러진 남녀의 성 전쟁 끝에 남은 남자들은

모두 화성으로 추방되고 여성들만이 남아 진성인(위시두)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 우선구는 약혼녀 장숙원이 남긴 일기장, 기록문을 통해 그간의 인류 역사를 공부하고, 리긴 기자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한다.

우선구는 세계정부의 수도인 헤어지루를 구경하거나, 우주정거장, 학교 등을 견학하면서 진성사회가 20세기 인류가 직면했었던 기아문제, 냉전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운영되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이룩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는 예술을 억압하고, 성적인 본능을 죄악시할 뿐 아니라, 화성으로 쫓겨난 남성들과의 공존을 거부하는 독재국가이기도 하다. 정부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이 지정되고 한정되는, 거의 연금 상태에 불과한 생활에 반발한 우선구는 화성 전문가인 샘 앤 교수와 만나 진성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반항적 행동으로 인해 우선구는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되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리긴 기자 등의 도움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그는 <미래전쟁>이라는 소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강요하고,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인간적 본성을 억압하는 진성사회에 대해 비판하였고 그의 행동은 시대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1993년 『SF 메거진』에서 한 인터뷰에서 작가 문윤성은 과학소설에 대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장르가 SF”라고 하였다[9]. 즉 『완전사회』에서 그리고 있는 진성사회는 20세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대적 문제가 사라진 대안적 사회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성사회는 작가가 이 작품을 쓰던 20세기 중 후반의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의 반영물이기도 하다. 대체세계에 대한 상상과, 현실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계기는 과학소설 장르가 가진 특성이다. 즉 과학소설에서 계기가 되는 문제는 당대의 세계가 안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문제의 반영이며, 또한 이 문제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의 장인 것이다.

2.2 유토피아와 과학소설

하인라인은 과학소설을 ‘현실세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충분한 지식 그리고 자연과 과학적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굳게 토대를 둔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사색’[10]이라고 정의하였다. 윌리엄 슬리터(William Sleator) 역시 과학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와 같이 말하였다. “과학소설이란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한

문학이며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부분이 과학소설과 판타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과학소설 작가라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과학이다[11].”

이와 같은 정의에서 볼 수 있듯, 과학소설은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행위의 문학적 결과물이다. 또한 윌리엄 슬리터가 말하고 있듯, 과학소설의 사사적인 추진력은 괴기소설이나 환상소설 등의 여타 로맨스 문학과 다르게 ‘과학 내지는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밑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 문학 양식에서 비롯된 로맨스(romance)인 판타지 소설과 과학소설은 일견 유사하나, 과학소설이 가진 ‘과학적 상상력’으로 인해 다른 로맨스 장르와 구분되는 것이다.

과학소설의 이런 장르적 특성에 대해 다르코 수빈은 『과학소설의 변형』(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등의 저서에서 ‘인식적 낯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리얼리즘 소설, 유토피아 문학, 판타지, 민담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인식(cognition)’이라는 측면과 ‘낯센(strangement)’의 측면을 축으로 하여,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중 ‘인식’이란 그 문학이 현재의 상태와 존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리고 그 상상력이 얼마나 정직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칙이며, ‘낯센’이란 빅터 슈클로프스키(Victor Shklovsky)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가 언급했던 ‘낯설게 하기’(ostranenie, Verfremdungseffekt)를 기반으로 나온 개념으로 ‘가상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에 추진력을 주는 ‘차이의 원칙’(the principle of differenc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7].

리얼리즘 소설의 경우는 인식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신 낯센의 측면은 무시된다. 이는 리얼리즘이란 양식의 특성상 현실세계에서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의 개연성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낯선 세계에 대한 상상력은 상대적으로 억압되는 것이다. 반면 판타지의 경우 낯센의 정도는 강하나 인식의 정도는 약한데, 이는 판타지의 상상력은 현실적 논리나 현실 세계의 한계라는 제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소설은 일견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인 인식의 측면과 낯센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문학 양식과 비교가 된다.

과학소설의 상상력이 ‘차이, 미지, 대체에 대한 상상력’[7]이라는 사실은 과학소설이 현실세계와는 다른 측면을 가진 미지의 세계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12]. 하지만 이런 미지의 낯선 세계에 대한 상상이 허무맹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과학소설이 가진 모순이며 독자들이 과학소설을 읽게 만드는 서사적 추진력이다. 실제 과학소설에서 등장하

는 막연한 미래의 기술이 얼마 후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예는 많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1944년 『어스티운딩 사이언스 픽션』을 통해 발표되었던 크리프 카트밀(Cleve Cartmill)의 과학소설 「데드라인」(Deadline)이 원자폭탄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세세하게 묘사하는 바람에 작가가 심문을 받았던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국은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한 방편으로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이 단편에서 묘사한 원자폭탄이 실제와 너무나 유사하여 국가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생각한 FBI가 작가를 심문한 사건이다. 결국 공공도서관에서 접한 과학지식을 토대로 한 작가의 상상력이었을 뿐이었다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과학소설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드러나기도 했다. 『완전사회』에서도 무빙 워크, 무수정 인간(복제인간) 탄생, 관람기(CCTV), 2000년대 초반의 세계 인구를 60억²⁾이라고 가정한 것 등 수십 년 후의 사회 묘사가 의외로 현실성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과학소설 속의 과학이 실제 과학과 얼마나 유사한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에 불과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과학소설의 세계가 독자들에게 소설적 박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서사적 추진력의 문제이다. 과학소설 속의 상상력은 현실 세계의 논리를 초월하지 않을 때 현실성을 가지며, 화성이나, 외계인과 같은 낯선 존재를 상상한다 해도 그 안에서 현실적인 논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소설 속의 세계가 인식적으로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과학소설이 가진 인식적 측면으로 인해 과학소설이 낯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7]. 또한 과학소설의 현실성은 과학소설이 과학적 상상력, 내지는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과 땀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과학소설 속의 문제는 그 소설이 탄생하던 당시의 사회 그리고 과학적 발전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인식이 융합하여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수빈은 과학소설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유토피아 문학에서 찾는다. 그는 유토피아 문학을 과학소설의 ‘사회 정치적 하위 장르이자, 딸은 아니라도 질녀 정도는 될 수 있는 존재’[13]로 지칭한다. 흔히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수빈은 유토피아가 종교적으로 초월적인 세계를

2) 『완전사회』에 대한 기존 몇몇 연구에서 ‘30억 인구 중 3억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오류이다. 2003년에 발발한 3차 세계대전으로 총 인구의 90%가 사망하고 생존자는 6억이다(104-8).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계’(this-worldly other world)이며 ‘역사적으로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상황과 장소,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 더 잘 정비가 된 허구의 공동사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14]. 즉 과학소설이 인식적 낯설음 가지고 있듯, 유토피아 역시 현실사회를 대신할 대안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점에서 인식적 측면과 낯선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프레데릭 제임슨(Frederic Jameson) 역시 유토피아 정치학의 기본 활력을 자아정체성과 차이간의 변증법에서 찾는다[7]. 이는 현세대와 급진적으로 다른 체제를 상상하고 현실화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현세대에 대한 인식과 현 세계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동시에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상향을 그린 유토피아 문학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유토피아 문학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1516)를 통해 볼 수 있다. 작품의 화자인 라파엘 휘틀로다이우스는 영국에 대해 ‘양이 사람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운다고 들었다’[14]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영국에서 엔클로우저 운동으로 인해 목축업이 유행을 하면서 농노들이 지주에게 토지를 몰수당하고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게 된 역사적 사실을 비꼬고 있다. 그러므로 토마스 모어가 그린 가공의 세계는 헨리 8세라는 강력한 군주가 통치하는 전제적 독재적 상황에서 감히 직설적으로는 말하기 힘든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기 위한 우회적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작품 제목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역으로 본다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회는 유토피아와 정반대의 사회일 것이라는 논거가 존재한다. 수빈은 풍자가 내포하는 것을 유토피아는 해석해준다고 하였다[7]. 그런 의미로 유토피아 문학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2.3 『완전사회』의 대안적 상상력과 과학적 개연성

시간여행은 H. G. 웰즈의 『타임머신』 이후 여러 소설과 SF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이다. 『완전사회』에서는 시간이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고안하는 대신, 수면 장치를 통해 동면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시간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동면을 통해 노화와 죽음을 정지시킨다는 보다 현실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수면을 통한 시간이탈은 세계 3대 SF작가로 불리는 아서 C. 클라크가 1968년에 발표한 『2001 오디세이』와 로버트 A. 하인라인의 『여름으로 가는 문』(The Door into Summer)(1956), 이반 예프레모프(Ivan antonovich Yefremov)의 소설 『안드로메다 성운』(1957)에

서 미래로 가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1950-60년대의 전형적인 SF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수면장치를 이용하여 생체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타임머신을 이용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아도 훨씬 현실성이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앨코르 생명연장재단(Alcor Life Extension Foundation) 등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냉동수면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과학적으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일반 독자들은 이러한 장치에서 과학적 개연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작가 문운성은 과학적 설정을 참가하여 작품의 개연성을 돕는 마련하고 있는데 비커즈 섬의 수면 시설에 대한 묘사 역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기밀실은 섬 중심부 지하 동굴 속에 마련되어 모양은 커다란 공같이 생겼고, 그 지름은 8미터 정도였다. 기밀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얼핏 보아 경기용 자동차 같이 생긴 것이 여행자의 침대로 쓸 캡슐. 이 침대는 1개월 1회의 속도로 자전하여 6개월을 주기로 지름 6미터의 원형 궤도를 따라 360도의 회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었다. (29)

과학소설의 과학적 개연성은 과학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학소설의 독자는 외계인에 대한 것이든, 시간이동에 대한 것이든 일단 그 작품이 과학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이라는 환상은 과학소설의 서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점이자 효과라고 할 수 있고, 문운성은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작품의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다.

우선구는 진성사회의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사회의 정치, 사회적 구조에 대해 알게 된다. 일단 이 사회는 중앙집권제로 세계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아프리카 자드 호 근방에 ‘헤어지루’라는 임시정부가 있고 한글에서 유래한 ‘헤민어’라는 공통 언어를 사용한다. 또한 모든 생산, 판매 시설들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거나 직영되는 일종의 공산사회이며 통제사회이기도 하다. 이런 진성국가의 모습은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던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연상하게 한다. 54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유토피아’는 섬나라인 언어, 관습, 제도, 법이 통일되어 있는 통제국가이며 교육, 직업, 교육 모든 곳의 제도가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자 휘틀로다이우스는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어 선생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사유 재산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현금이 모든 것의 척도인 한, 나라를 공평하고 행복하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최상의 것들을 최악의 시민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이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소수는 항상 불안해하고 다수는 완전히 비참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14].

유토푸스가 왕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대척점에 있는 대안 사회라면 진성사회는 남성이 주도하는 낡은 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 여성 대안 사회이다. 진성사회의 사회이념은 2068년 중구라파의 편센벽 공국 국립 여자대학 교수 멜리 칼렘 여사가 발표한 일명 '진성 선언'(혹은 칼렘 선언)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는 일체의 낡은 관념과 그 위에 설정된 모든 제도를 무시한다. 개인의 인생관으로부터 부부의 개념, 가족 제도, 법률, 사상, 사회 조직에 이르는 온갖 낡은 것은 근본적으로 파괴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성의 모순과 대립이 있는 한 인류와 동물의 차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불행의 씨는 여기에서 싹트고, 여기서 자라난 악은 한없이 반복되고 발전한다...우리는 영원히 참되고 아름다운 사회와 역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남성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제거한다(174-5).

진성사회라는 유토피아 세상에서 남성은 낡은 제도, 근본적인 악과 동일시되며 청산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 점에서 보면 과거의 청산된 세계에서 온 우선구 역시 진성사회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하지만 우선구가 반체제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진성사회를 바꾸기 위해 소설을 쓰고 문화운동을 하는 것은 여성으로만 이뤄진 진성사회가 과거 남성들이 저질렀던 오류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완전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 계급, 인종, 갈등과 같은 현재의 정치 문제를 이차 세계를 통하여 재조명하는 월콕스가 말한 '정치적 과학소설'에 해당한다[15]. 작가 문윤성은 작품의 머리말에서 완전사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과 함께 자신이 이런 이상향을 꿈꾸게 된 이유에 대해 "배부르고 몸 따뜻하여 소일거리로 한 건 결코 아니다.

배부르고 몸 편한 사람이 '이상'이나 '완전'을 찾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이런 작가의 말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은 완전사회가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한 20세기 중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대안사회라는 것이다.

3. 『완전사회』의 인식적 낮섬

3.1 과학과 인류종말의 역사

우선구가 진성사회에서 눈을 뜨게 되기까지의 역사는 우선구의 약혼자인 장숙원과 그녀를 돌봐준 인도인 나달잔의 딸 레나의 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진다. 비커즈 섬에 묻힌 장숙원과 레나의 일기를 우선구가 읽는 부분은 진성사회의 성립과정을 알려주는 대체역사로 이용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선구가 수면에 들어간 시기가 흔히 생각하듯 1967년이 아니라 1994년이라는 것이다. 이는 완전사회 56페이지에 우선구가 깨어난 해가 2155년이자 헤민61년이며 161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서술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선구의 탄생연도는 1967년이며 27세에 완전인간으로 선출되었다는 진술과도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현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래에 대한 상상이었고, 우선구가 진성사회에서 깨어나기까지의 역사는 현 인류가 무성생식, 즉 일종의 복제인간으로 구성된 진성사회에 의해 멸망되는 종말의 과정이기도 하다. 장숙원과 레나의 일기를 통해 알아본 인류종말의 역사적 사건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³⁾.

Table 1에서 볼 수 있듯 헤어지루 건국의 역사는 연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관련 사항은 첫 200페이지에 걸쳐져 서술된다. 또한 이어지는 '9장 고전문화연구원'에서 우선구는 학자들에게서 인류문화의 역사 4단계와 함께 '양성문화의 소멸과 더불어 진성문화가 등장'(2000)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에 대해 듣는다. 결과적으로 『완전사회』분량의 거의 반이 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류의 종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다.

3) 『완전사회』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우선구가 잠에 빠지고 난 후 다시 깨어나기 전까지 진성사회의 성립과 관련된 연대기에 많은 혼선과 오류가 있었다. 이는 우선구가 수면에 빠진 시기를 1994년이 아니라 1967년으로 상정함으로써 이뤄진 오류였고, 기존의 오류가 그 후의 연구에서도 수정되지 않은 채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Table 1을 통해서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는 바이다.

Table 1. Historical events before Sungu Woo woke up

Time	Historical Events
1994	Sungu Woo fell asleep.
2003	The 3rd world war broke out. 90% of the world population were killed.
2017	Success of nuclear detoxification Restoration of ruins started.
2025	The 4 th World War broke out. Less than 9,000 survived after the war.
2035	The death of Sukwon Jang
2036	Success of asexual reproduction(cloning)
2068	The declaration of the true sex was pronounced.
2069	Exploration of Mars
2095	The first year of Hairjiru's (the True Sex Republic's) foundation
2099	Men commanded by Stolman invaded the Hairjiru. This war between men and women continued for the next 12 years.
2108	Hairjiru army occupied Paris.
2111	The war ended and the defeated 8,000 men were expelled to Mars.
2155	Sungu Woo woke up

한국에 창작 과학소설이 처음 소개되던 시기가 한국전이었으며 『완전시대』가 출간된 1967년도 동서의 냉전시기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작가의 상상력이 현세계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첫 페이지는 뉴욕 맨해튼 그랜드 호텔 60층에서 곧 다가올 세계대전과 종말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유엔 사무국 과학분과위원회 책임 서기 샤론 디크위크 박사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미 자동차 생산협회는 자동차를, 영화인들은 영화를 깊은 산속이나 땅속에 매장하는 등, 인류는 곧 다가올 종말 앞에서 지난 역사와 문명을 조금이라도 남기려 애쓰고 있고, 우선구를 인류의 대표로 보내기로(남기기로) 한 것 역시 이런 종말의식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종말의식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는 분명하지는 않다.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알비나’와 ‘에스야’가 유럽의 일각에 붙어있는 공산주의 이념의 국가(101)라는 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목표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보았던 당시의 이념이 투영된 것’[3]이며, 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작가가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함으로써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모습 역시 이들의

종말의식의 중요지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7]. 인류구원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이 미국인이라는 설정, 당대 대중이 시혜적으로 인식하는 유엔의 전면 배치가 인류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공산주의의 대립각으로서의 존재감을 독자에게 환기시킨다[16]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윤성은 종말전쟁의 원인을 이데올로기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우선구가 읽은 전쟁사에서는 3차 대전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제3차 세계 대전은 선구가 그 옛적에 기우한 바 같은 우발적 사고나 동서 세력 간의 미리 마련된 정면충돌로 야기되지 않았음이 선구에게 의외라던 의외였다. 연감 편집자의 저술을 보건대, “제 3차 세계 대전의 불씨를 던진 당사국, ‘알비나’와 ‘에스야’는 유럽 일각에 붙어 있는 소국이며 같은 공산주의 이념 국가다. 서로 도와야 할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름으로써 열린 이 세계적 비극의 원인은 어디 있으며 목적인 비는 무엇일까? 그것은 피치 못할 절대적인 이유도 거뒀을 일 아무런 수확도 없는, 말하자면 우매하고 허황된 투기 그것뿐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전쟁사가 전부 그랬듯이,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을 역사는 증명하였다(101).

즉 3차 대전과 이어지는 4차 대전은 동서 세력 간의 정면충돌로 벌어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피치 못할 절대적인 이유나, 수확이 없는 우매하고 허황된 투기’라는 진단을 보면, 진성사회는 전쟁원인을 냉전이나 이데올로기의 다름보다는 양성사회 구성원들의 인간성 자체가 가진 결함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류 전쟁사에서 볼 수 있듯 현 사회의 주류인 남성들이 가진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삼스럽지도 않은 전쟁의 역사에서 왜 3차 전쟁이 인류의 90%를 전멸시키는 종말의 전쟁이 되었나 하는 의문에 도달하게 된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과학의 발전’이다. 장숙원의 기록에도 인류의 존망 자체를 좌지우지했던 것은 과학이었다. 4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숙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지는 누구냐? 그건 과학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못난 사람은 누구냐? 그건 과학자다”(106)라고 탄식하고 있다. 즉 ‘창조자로서는 위대하나 자기 창작품의 사용 능력에 있어선 허약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지지리 못나게 걸머져야 하는 게 과학자’(106)이며 ‘새삼 과학의 위대성과 그 잔인성,

그리고 그 허망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107)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성사회가 가진 전쟁지향성이 윤리가 없는 과학적 발전과 만남으로 인해 인류종말이 초래되었다.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다름으로 인한 분쟁은 인류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 전쟁 중 하나일 수 있으나, 통제되지 않는 과학이야말로 미래를 종말로 이끌게 할 궁극의 두려움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3.2 불완전한 완전사회: 모순과 대립

진성사회의 근간에는 양성사회의 모든 제도와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점철된 진성 선언이 있다. 칼럼 선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진성 선언의 핵심은 '성의 모순과 대립의 타파'이다. 이는 앞서 양성사회의 종말이 양성 사회 인간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역사가들의 견해와도 통한다.

진성사회를 작가가 왜 페미니즘 세상으로 구상했는지에 대해서 이정옥은 이 작품이 발표된 1967년 당시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발흥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15].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여성인권운동을 긍정적으로 투영하여 여성만으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부장제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1960-70년도의 남성들이 거세진 여성운동 등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내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구라는 남성을 통해 진성사회라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비판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진성 선언에 대해 '몹시 눈에 거슬리고 불쾌한 글'(175)이라고 우선구가 평가를 하는 것이나 '웅성(남성)을 동반자로 삼는 행위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락'이라 여기고 유일한 남자인 우선구를 추앙하는 '희망과 우정의 모임'이라고 종교에 대한 회화화, 양성 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우선구가 서서히 진성사회에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결국 20세기 남성인 우선구의 입장에서 보는 진성사회는 언젠가 '성의 모순과 대립의 타파'를 또다시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문제적 사회이다.

이처럼 진성사회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이면서도 1960년대 우선구가 태어나던 당시의 모습을 다시금 재현한다.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본 소설은 우선구가 현 인류를 대표할 완전인간으로 선택되어 수면여행을 시작하고 161년이 지나 잠에서 깬 후 지난 역사를 살펴보는 첫 부분, 진성사회의 사회체제, 사회문제, 권력층과 반체제인사들과 만나는 중간, <미래전쟁>이란 글을 발표하여 사회개혁운동을 하게 되는

마지막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진성사회에서 지구상에 남은 단 한 명의 남성이 된 우선구는 회귀한 존재라서 환영을 받기는커녕, 화성으로 도피한 남성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 혹은 반체제 운동의 도구, 권력층의 권력유지의 도구로 이용될 유혹이나 위협에 놓이게 된다. 또한 그는 형무소 투옥, 가택연금, 납치 등 20세기 한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필수적으로 겪었을 고난을 미래사회에서 그대로 겪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함부로 수갑을 채우는 기관원, 어딜 가난 부딪치는 관료 기풍, 불친절, 불신 그중에도 놀라운 건 피의자의 발바닥에 적외선 낙인을 찍어 항상 감시를 하는 제도 등이 군사 독재 상황에 놓여있던 당시 한국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16].

진성사회가 풍자를 위한 일종의 알레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다면, 본 소설의 제목을 '완전사회'라고 하고 우선구를 '지성인인 동시에 완전한 신체를 갖춘 완전인간'(13)으로 표현한 표현법이 가진 반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역사의 불완전성의 원인제공자로 간주되는 남성을 제거하여 성의 구별을 없애고 완전사회가 된 진성사회에 보내진 완전인간이 조명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완전사회의 불완전성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회가 여성들의 사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남성과 대비되는 개념인 '여성'이라는 개념 대신 '진성인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우선구가 만났던 경비원이 온 세상에 '머시레(여성)는 없고 위시두(진성인간)가 있다'(131)고 대답한 것과 우선구가 만났던 진성 사회인들이 우선구가 자신들을 '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남녀의 개념 자체를 말소한 진성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와의 단절 위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유토피아이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섬이며 통제 속에서만이 유지될 수 있듯이 사회도 화성으로 도망간 남성 잔당은 물론, 과거의 역사와도 단절됨으로써만이 존재할 수 있는 통제사회이며, 언젠가 이 사회의 완전성에 흠결을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회의 완전성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단일 중앙집권체제의 세계정부에 의해 모든 경제 정치 행위가 통치되고,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공교육, 종교단체의 형성이 금지되는 통제사회인 진성사회는 교육을 통해 과거 남성이 성적 만족을 위한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여성을 공격할 태세가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는 점을 세뇌시키며, 이성애이든 동성애이든 상관없이 타인과의 접촉으로

이뤄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국가전복 행위와 동급으로 취급한다. 그렇기에 리진 기사가 우선구를 만나서 취재를 할 때 취재에 앞서 우선구가 자신을 겁탈하려 들지 않을까를 본능적으로 겁을 내며 과거 남성들의 폭력성에 대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성사회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보다 단일한 성만으로 구성된 순혈성이 이 사회의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흰색에 때를 입히기가 쉽듯 순혈주의는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며 위태롭게 존속된다. 그러므로 22세기의 대안세계는 20세기 중반의 냉전사회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영물이기도 하지만, 단일한 사상, 생각, 민족을 강요하는 순혈주의와 이질적인 요소를 억압하는 폐쇄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선구가 쓴 소설 <미래전쟁>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성의 분쟁이 해결 난 오늘날 인간들은 기호, 식성을 가지고 또 다시 싸운다. 결국 어느 한 편이 남긴 하겠지. 그렇다고 만사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인간은 동물적 욕망, 피해 의식이 남아 있는 한 인간은 동물이요, 역사는 처절한 살육의 연속일 거다. 동물적 욕망이 사회를 지배하는 한 싸움의 핑계 거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인간 자체의 혁명을 치러야겠다. 역사적 여건 하에 얽매어 지내온 인간을 지양하고 의지의 인간, 능동의 인간으로서 역사를 창조해나가야겠다 (499)

우선구의 소설에서 분쟁의 대상은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간의 성의 분쟁에 대한 은유이지만, 또한 이질적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를 말살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4. 결론

지금까지 문윤성의 『완전사회』가 가진 과학소설적 특성을 우선구가 수면장치를 통해 미래로 보내질 완전인간으로 선출되는 과정과 161년 후 깨어나서 맞이하게 된 진성사회를 통해 살펴보았다. 진성사회는 여성들로만 이뤄진 가상의 세계이자 여성들로 이뤄진 페미니즘적 대안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작품은 1960년대에 출현한 최초의 과학소설로서의 의미나 페미니즘 유토피아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헤어지루를 수도로 하는 이 가상의 세계정부가 가진 행정기구, 문화적 특성, 언어, 사회 등에 대한 조리 있고 자세한 묘사로 인해, 가상의 세계에 현실적인 박진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본 소설은 최초의 과학소설이라는 평가 이상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르크 수빈이 말한 과학소설적 특성인 인식적 낮춤은 이 작품이 1960년대의 인식적 바탕 위에서 전혀 낯선 세계를 그려내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가진 인식적 측면은 냉전사회나, 1960년대의 페미니즘의 발흥[17]만으로 한계를 지을 수는 없다. 즉 이런 접근법이 충분히 가능하나, 작가의 인식은 그 이상까지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주의나 냉전시대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현대의 비약적인 과학적 발전에 대한 염려와 사색 역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선구를 인류 최후의 인간으로 미래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미래상황에 대한 상상은 냉전시대의 종말에 대한 상상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발전이 윤리적인 인식과 동반되지 않을 때 어떤 파괴적인 미래를 동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4차 산업의 도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잠재적 위험과 잠재적 이득”[18]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견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통제와 동일성을 강요하는 폐쇄사회인 진성사회의 모습은 남성 중심적 사회를 거부한 여성들만의 세계,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대결을 넘어서서 일체성을 가진 국가를 고집하고 다름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는 어떤 시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1967년에 처음 출판이 되었던 『완전사회』는 최근 다시 출판됨으로써, 그리고 2010년대 이후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됨으로써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선상에서 본 작품이 의미하는 함의를 좀 더 확대해 보았다. 그리고 본 작품이 가진 의의와 함의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A. S. Choi. (2017). Features of domestic science fiction in the 1960–1970’s—concentrated on science for students.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3(1), 249–291.
- [2] J. U. Son. (2014). Moon Yoon-seong’s *Perfect Society* and the architectonics of the future. *The Journal of Language*

- and *Literature* 60, 239–263.
- [3] S. Lee. (2012). A study on Mun Yun Seong's complete Society (1967) – Focused on features as a SF and reflection of the ruling ideology. *Korean Literature*, 52, 225–253.
- [4] A. S. Choi. (2017). The development of SF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in the initial stage. *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21, 41–88.
- [5] F. Jameson. (2005).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London: Verso.
- [6] D. H. Bok. (2011). Only one man and all women: utopia and sexuality after armageddon—Mun Yoon Sung's science fiction, on *Perfect Society* (1967).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4, 345–373.
- [7] D. Suvin. (2016).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xford: Peter Lang.
- [8] Y. S. Moon. (2018). *The Perfect Society*. Seoul: Ajack.
- [9] J. W. Go. (2011). *The Science 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p=94625&post_type=news
- [10] V. Zmegac & D. Borchmeyer. (1996). *Moderne Literatur in Grundbegriffen*. Trans. J. Y. Lyu, J. Y. Back, J. D. Lee & J. L. Joe. Seoul: Soul.
- [11] William Sleator. (2005). *What is science fiction? Changbi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Trans. S. J. Park, 3(2), 205–217.
- [12] K. Y. Han. (2000). The fantasy and scientific imagination of Korean science fictions.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12, 89–110.
- [13] D. Suvin. (2010). *Defined by a Hollow: Essays on Utopia, Science Fiction, and Political Epistemology*. Oxford: Peter Lang.
- [14] T. More. (1516). *Utopia*. Trans. K. J. Jun. Seoul: Yelin chackdul.
- [15] J. O. Lee. (2000). The narrative of adventure to the Feminist Utopia.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5(1), 139–164.
- [16] H. J. Mo. (2016). The study on the Korea creative science fiction end consciousness in cold war era—Focusing on the *Lost Boys*, *Venus expedition* of Han Nak Won and *Perfect Society* of Moon Yoon Sung. *The Journal of Language & Literature*, 65, 127–144.
- [17] S. W. Choi. (2017). <Orlando>—Unity and Harmony of Male and Femal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27–137.
- [18] S. K. Park. (2018).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Korean university's role chang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235–242.

손 나 경(Na-Gyung Sohn)

[정회원]



- 1989년 2월 :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1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 1999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문학박사)
- 2008년 12월 : University of Birmingham (번역학 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
- 관심분야 : 현대영미소설, 과학소설, 융합교육, 번역학, 번역문화
- E-Mail : na1007@kmu.ac.kr